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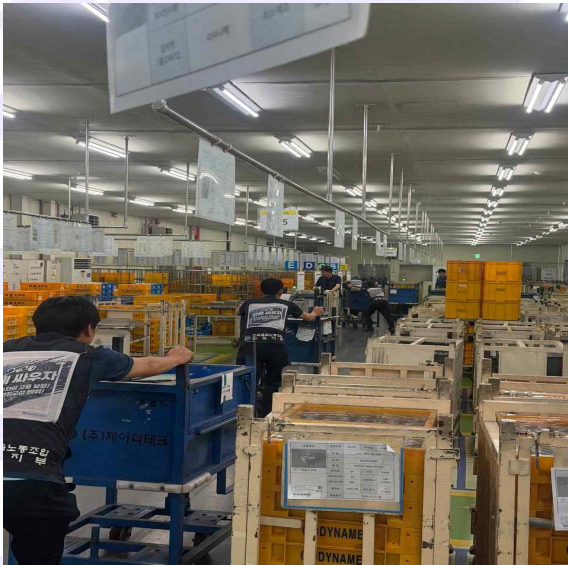


철의 노동자 평택지회

조합원 중심!
현장 고용안정!
현장 통제 OUT!

제14-11호 / 2026년 7월 29일 / 전화(031)680-6800-8 / 팩스:681-2888 / md.kwmu.kr / 금속노조 만도지부 평택지회 이시열

불통을 넘어 **화통으로!!!** (국어사전에는 없는 단어임다)



이제는 화낼 힘도 사라지려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그저 헛웃음만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사이 노동조합은 그 헛웃음마저 잊게 만드는 사측의 행태에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소통하자더니 불통으로, 불통을 지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게 하는 화통으로, 이러다 제명에 죽기 어려울 것 같아 겁나기도 합니다.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다!!!

어제 7월28일(화요일)에 MOC 5차라인에 불법 외주품이 생산을 하기위해 투입되었습니다. 다행히 노동조합이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제지하지 않았으면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범법자들을 양산할 뻔하였습니다. 위로는 센터장부터 아래로는 직장까지, 뿐이겠습니까? 이와 연관된 간접 부서의 중간관리자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20여 명에 이르지 않을까 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 노동조합이 저 20여 명의 사람들을 구해내었습니다. 저들도 한집안의 가장일 터인데 우리 노동조합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출한 것입니다.

평택 사업본부는 정몽원 회장님과 조성현 부회장님의 처벌을 위한 위법행위(단체협약 위반)를 자행 하는가?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사측은 아직도 노동조합이 만만한가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노동조합이 두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벌였을까요? 그도 아니면 금속으로의 전환이 그저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본 것일까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나이라도 어려야. 몽둥이썰질로 바로 잡을 텐데, 참 걱정이 앞섭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게 이런 것일까요?



노동조합의 힘. 단결의 힘. 연대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동안 숨기고 숨겨왔던 단결의 힘. 쓸데가 없어서 고이고이 모셔 두었던 연대의 힘을 사측에게 보여줍시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하고, 그동안 잠시 저들에게 맡겨 두었던 현장의 권력을 되찾아 옵시다. 그 길에 노동조합은 동지들을 믿고 올곧이 앞만 보고 갈 것입니다.

**되찾은 현장 권력으로 현장을 장악하고, 행복한 일터,
건강한 일터를 건설하자!!!**

이진광 동지 국회의원들도 심각성 인지

조국 혁신당 혁신 정책연구원 조국 원장이 김00 빈소를 찾아 조문 하였습니다. 조문후 현안 문제 및 이진광 동지에 대해 심각성 표명과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편 조국 혁신당의 현역 의원들도 이진광 동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만간 지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